

얼음 깨기

내 인생의 스승

어느덧 빅이벤트(어린이날, 어버이날 등)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승의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이유는?
특별히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은?
(학교, 교회 등)

교회행사

5월

5일 어린이주일
“히즈쇼 뮤지컬”

12일 어버이주일
“김성중 교수 초청
장년 일일 말씀사경회”

6월

16일 더가족세미나(4주간)

경배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

[이화남 선교사]

남아공

- 이곳의 주민들이 조용히 스며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 우물을 허락하시어 목마른 주민들에게 영과 육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길
- 코로나로 흩어진 교인들이 돌아오게 하시어 더욱 무릎 꿇게 하시기를
- 사역을 필요한 차량 구입 비용을 채워주시기를

교회 소식

1. 국내 의료선교 5월 15일(수) 완주군 운주면에서 진행되는
국내의료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2. 호스트패밀리 오는 5월 18일 토요일 전주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유학생들과 ‘1일 홈스테이’와 이어서 ‘호스트 패밀리 결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신청하신 성도님들께 먼저 개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이번 호스트패밀리 결연은 1년 단기 기간으로 진행되며 대부분 영어와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선교에 진심이고 진실하게 동참하는 기회가 될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한문장 큰 울림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창조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께서
베풀어주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격하고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의식”입니다.

- 김성중 교수
(장신대 기독교육학) -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단 1:5-9)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살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의 기구들을 훔쳐갔고, 바벨론 왕국에 이익이 될 만한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별볼일 없고, 모자란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않고,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가졌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어린 소년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 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잘못 태어났습니다. 포로입니다. 다니엘은 이름의 뜻까지 강제로 개명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지배받은 거 알지요? 그 때 일본에 의해 이름이 바뀌었지요? 창씨개명이라고 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본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판단자이고, 평가자라고 믿으면 전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관찰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란 이름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원래 다니엘의 이름에 “엘” 하나님이 나오는데, 바벨론에 갔더니 너네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이 믿는 벨 신을 믿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다니엘에게는 진짜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다니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힘든 다신교 배경 하의 이방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이 안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그야말로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산해진미는 다 있었고, 세계최고급 포도주가 매 식사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으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왕이 지정해서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음식을 안 먹으면 그야말로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바로 사형인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쉬웠을까요? 한 마디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그 음식을 안 먹은 것입니다. 이제 난리난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했던 환관장이었습니다. 환관장도 반역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열흘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다니엘이 그저 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의 두려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 존경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존경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존경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맞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맞추는 것이 의무입니까? 좋아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면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두려워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다리오 왕 시절에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 주변에 시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의 단점을 찾는데 유일한 단점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벨”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법안을 왕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왕 입장에서는 자신을 신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법안에 도장을 찍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반대파가 감시하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대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기도와 예배는 목숨보다 귀했습니다. 다니엘은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눔] 포로였을 때나 총리였을 때나 한결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을 통해 내가 느낀 점은?**

주일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 다니엘 1:5-9]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시다.

나눔

바른 경외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바른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며,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소서.

바른 예배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하옵소서.